

가족 기능과 융합형 심리적응 보호요인의 관한 연구

장춘옥^{1*}

¹늘봄서비스상담센터

A study of family function and convergent adaptation hearing protection factor

Chun-Ok Jang^{1*}

¹Neulbom Services Counseling Cente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에서 위험요인, 보호요인, 심리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심리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기술통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학교친구애착에 따라 기능적 결손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나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입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Key Words** : 기능적 결손, 위험요인, 보호요인, 심리적응, 적응유연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chanism of mediated effects for protective factor among the relations of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and psychology adaptation under risky situation as functionally deficient family, and to identify the protective factors that protects adolescents with high psychology adaptation level. To achieve these goal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5th year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tudy (Junior high panel) surveyed in 2008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tudy results first shows that the psychology adaptation level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functionally deficient family varies depending their self-esteem and attachment to school friend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ediated effects in the impacts of functionally deficient family on psychology adaptation. Therefore, in social work field, it is advisable to focus on the process to mitigate the risk factors or to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rather than focus on the risk factors of adolescents. With this method, the negative perception of adolescents exposed to risk factors can be changed as well as the way of intervention for supporting them.

• **Key Words** : Functional Deficiency;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psychology adaptation; Resilience

1. 서론

급격한 변화를 겪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다양한 가

족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급격한 가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사회

*교신저자 : 장춘옥(jangddogas@hanmail.net)

접수일 2015년 5월 12일 수정일 2015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0일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생산 기능과 교육을 기초로 한 사회화 기능은 어떠한 제도로도 대신 할 수 없다 [1]. 이렇게 중요한 가족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 가족의 기능상실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내적적응 및 외현화 행동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구조적 측면과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7,8]. 이러한 주장들은 가족이 변환기를 거치면서 가족관계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응을 유지하는 청소년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적응과 발달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적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청소년의 발달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을 전제로 심리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추출한 뒤 이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결손가족과 청소년의 적응적결과

구조적 관점에서 결손가족은 부모에 초점을 두고 생물학적으로 맺어진 부 또는 모 혹은 부모가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부재한 가족, 즉 가족형태의 정형이 깨어진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편부모 가족과 부모가 모두 없는 미혼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포함된다 [5,10]. 기능적 결손가족은 외형적으로 결손이 없다고 할지라도 산업화와 다양한 직업에 따른 부모님들의 별거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접촉시간이 줄고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자녀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양육이 결손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12].

기능적 결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족의 기능적 측면의 결함이 있으면 결손으로 보았다. 하지만 가족의 기능이 다양하므로 어떤 부분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며 어느 정도의 기능 수준이 결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족 형태는 정상적이지만 양친의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족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보장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을 기능적 결손가족이라 볼 수 있다 [7].

가족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장애가 없다면 청소년에게 긍정적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손과 같은 형태의 결함이나 기능의 장애는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이혼 등 가족의 형태적 요인이 강조되어 왔지만, 결손된 가족 환경으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 애정부족,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방법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촉발하는 주요인이 된다. 심각한 부모갈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며, 또래친구에 대한 폭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

2.2 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청소년의 보호요인

일반적으로 보호요인은 빈곤, 학업중퇴, 비행,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들을 찾고자 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었다 [8].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 산물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여 위험요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기능적 결손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호요인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하였으며,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으로도 구별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 신체적 건강상태나 성격기질과 같은 요인이나 자존감, 통제신념과 같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환경적 자원으로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유대를 말하였다. 좀 더 세분화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보호요인을 설명하였다. 개인적인 측면은 문제해결 기술과 지적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책임감과 종교생활이고, 가족측면은 중요한 한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보호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또는

환경적 과정 또는 특정한 산물을 산출하는 특정 상황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의 상호작용들이다 [4]. 지역사회 측면은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가정과 학교, 다른 사회기관과의 유대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동일 표본을 두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자료로 조사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경험한 청소년 중 고위험 상황에서도 높은 심리적응을 보이는 청소년과 낮은 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을 구분해주는 보호요인을 찾기 위해 이원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연구가설

<연구가설 1> 보호요인에 따라 기능적 결손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1-1> 자아존중감에 따라 기능적 결손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1-2> 학교친구애착에 따라 기능적 결손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3.4 연구도구

3.4.1 종속변인

청소년의 심리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잘 적응한 상태”로 정의하였고[5,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우울과 불안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념상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문항을 역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나게 구성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836$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3.4.2 독립변인: 기능적 결손(위험요인)

부모의 양육을 묻는 질문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측정하고자 하여 양육태도를 묻는 6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리커트형 척도이며 분석과정의 편의를 위해 긍정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능적 결손가족이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911$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3.5 보호요인

3.5.1 개인적 보호요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등을 묻는 긍정적 문항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실패감을 묻는 부정적 자아평가 등에 관한 내용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763$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3.5.2 사회적 보호요인

사회적 보호요인을 묻는 학교관련 문항으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화 하여 평균의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558$ 로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3.6 통제변인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빈곤여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 '1', 여학생 '0'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빈곤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는 '1', 중위소득 60%이상 가구는 '0'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결손가구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는 '1'로 구분하였다. 그 외 친아버지만 계시는 경우, 친어머니만 계시는 경우, 친아버지와 계모가 계시는 경우, 친어머니와 계부가 계시는 경우, 계부와 계모가 계시는 경우, 계부만 계시는 경우, 계모만 계시는 경우,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경우는 '0'의 값을 주었다.

4. 분석결과

4.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분석의 분석대상자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분석대상자의 수는 2,967명이며 이들 중 남학생이 50.8%를 차지하는 1,510명, 여학생이 49.2%를 차지하는 1,457명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alyzed

Division		collection (Number of people)	(%)
sexuality	men	1,510	50.8
	woman	1,457	49.2
Family structure	father+ mother etc.(if not the father+mother)	2,706	91.2
	no answer	243	8.1
		18	0.6
Poverty Status	Poverty	583	19.5
	Non poverty	2,212	74.6
	no answer	172	5.8
계		2,967	100.

분석대상자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은 2,706 가구로 전체의 91.2%에 해당하였으며 친아버지가 아니거나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와 또는 두 분 다 없는 경우가 243 가구로 8.1%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빈곤가구는 583 가구, 중위소득 60%이상 비빈곤 가구는 2,212가구로 비빈곤 가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4.2 고위험 상황에서 높은 심리적응을 보이는 청소년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과 일반가족 청소년이 무작위로 포함되어있는 일반 표본에서 절대적인 고위험 기준과

고적응 기준을 설정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일반 가족 청소년의 위험 요인 평균은 2.51점(SD=0.72)이며,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위험요인의 평균은 3.37점(SD=0.41)로 일반 가족 청소년의 위험요인 평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응의 평균 점수는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및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심리적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고위험-고적응 청소년의 확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위험 청소년과 저위험 청소년이 섞여있는 일반가정 청소년 집단에서 위험요인 점수 상위 25%이상에 해당하는 3.00점을 기준으로 고위험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전체 기능적 결손 집단에서 분류된 청소년은 821명으로 전체 집단의 27.7%가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된 고위험 집단에 다시 적응이 높은 청소년(고위험-고적응)과 적응이 낮은 청소년(고위험-저적응)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청소년집단의 심리적응 평균의 상위 25% 3.83점, 하위 25% 2.83점을 기준으로 고적응집단과 저적응 집단을 구분하였다.

<Table 2> General risk factors and functional deficits family / psychological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aptation

Variables		Case numb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Family	Risk Factors	2,958	2.51	0.72
	Psychological adaptation	2,967	3.39	0.77
DefectFamily	Risk Factors	842	3.37	0.41
	Psychological adaptation	842	3.24	0.79

<Table 2>에서와 같이 전체 청소년 2,967명중 심리적응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 3.83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94명으로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 821명의 23.6%에 해당하였고, 하위 25%인 2.83점에 해당하는 저적응에 청소년은 218명으로 26.5%에 해당하였다.

전체 기능적 결손 집단에서 분류된 청소년은 821명으로 전체 집단의 27.7%가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된 고위험 집단에 다시 적응이 높은 청소년(고위험-고적응)과 적응이 낮은 청소년(고위험-저적응)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청소년집단의 심리적응 평균의 상위 25% 3.83점, 하위 25% 2.83점 <Table 3>에서와 같이

<Table 3> High population and low adaptive adaptation in high-risk groups cutoff situation

Group Division			Calculation Grounds	standard	case number	(%)
High Risk (N=842)	Psychological adaptation	High-adaptation collective	The top 25% of the general youth population	3.83point or more	194	23.6
		Low- adaptive group	Lower 25% of the general youth population	2.83point or less	218	26.5

<Table 4> Youth and high-risk and protective factors Psychological adaptation

Variables	Personal protective factor			School-related protective factors		
	B	(S.E)	EXP(B)	B	(S.E)	EXP(B)
sexuality(women=0)	-1.165**	.054	.312	.095	.095	1.100
Poverty Status (Non poverty=0)	-.197	.293	.821	.509**	.132	1.664
Status the structural defect (Non poverty=0)	-.367*	.416	.693	-.252	.201	.778
self-esteem	1.606**	.224	4.985			
School friend Affection				.529**	.065	1.697
Model Chi-square	124.346** df=5			151.423** df=5		
-2log likelihood	401.593			2721.532		
Negelkerke R ²	.372			.083		
Variables	Integrated Model					
	B	(S.E)		EXP(B)		
sexuality(women=0)	-.044	.224		.957		
Poverty Status (Non poverty=0)	.334	.229		1.397		
Status the structural defect (Non poverty=0)	-.117	.430		.890		
self-esteem	.747**	.197		2.110		
School friend Affection	.346*	.159		1.413		
Model Chi-square	111.434** df=8					
-2log likelihood	517.806					
Negelkerke R ²	.263					

*p<.05, **p<.01, ***p<.001, 분석대상(N)=고위험 집단(821명)

전체 청소년 2,967명중 심리적응 상위 25%에 해당하는 점수 3.83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94명으로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 821명의 23.6%에 해당하였고, 하위 25%인 2.83점에 해당하는 저적응에 청소년은 218명으로 26.5%에 해당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기능적 결손 청소년 중에서도 일반가정 청소년의 상위 25%에 들 정도의 높은 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3 고위험상황에서 심리적응과 보호요인

앞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개인적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고위험-고적

응 청소년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둘째, 사회적 보호요인만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교친구 애착변인은 모두 고위험 상황에서 심리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1) 가설<2-1>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Table 4>에서와 같이 모든 변인을 함께 투입한 통합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학교친구애착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학교친구애착이 높아질수록 저적응 집단보다는 고적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른 요인들은 통합모형 안에서 그 영향력이 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합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

보호요인이 고위험 상황에서의 적응과 가장 많은 관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승환(2006)의 심리사회적응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에서는 내적통제와 유능감이, 사회 환경적 특성에는 가족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다 [9]. 자아존중감, 학교친구애착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직접적인 영향력의 검증보다는 이들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기능적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을 인물중심과, 변인중심 모두 측정하여 고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을 확인하고 예측변인과 발달 산물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청소년이 가진 보호요인에 따라 적응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위험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접근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과 부모감독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와 보호요인에 따라 적응이 달라짐을 파악하였다. 이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마련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청소년에 시각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나 보호요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켰으며 이들에 대한 실천현장에서의 개입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능적 결손을 측정할 척도는 부모양육과 부모감독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는 영역이 단순히 부모의 양육이나 감독에 한정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 2패널 5차년도 자료로 연구하여 이론 모형에 적합한 변인구성을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한 한계에 따른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완벽한 변인구성을 통한 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 가족의 기능적 결손을 경험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혼, 사별 등 기능적 결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적응 수준을 함께 살펴 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가족 환경 역경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일반화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 Parson. "The normal american family" B.N. Adams, T. Weirath (Eds.), Readings on the sociology of the family. Markham publishing company, Chicago.1971.
- [2] C. S. Holmes, Z. Yu, & J. Frenz. "Chronic and discrete stress as predictors of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7, pp. 411-419. 1999.
- [3] D. A. Wolfe & P. Jaffe,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as determinants of child psycholog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23, pp. 282-299. 1991.
- [4] L. P. Hernandez.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93.
- [5] A. S. Masten & J. D. Coatsworth,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pathology*, 2, pp. 425-444, 1998.
- [6] A. S.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pp.227-238, 2001.

- [7] J. Belsky, "Are insecure-avoidant infants with extensive day-care experience less stressed by and more independent in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2, pp.567-571, 1991..
- [8] J. Horowitz, "Conceptualization of portention: Examining the single parent family", *Marring and Family Review*, 1995.
- [9] Seung Hwan Oh.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ce in Poverty: Exploration of Resilience." *Korea Society of Child Welfare*, No. 21, pp. 181-205. 2006.
- [10] Sek Won Gong. "Approach of defects by type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family policy." *KIHASA OPEN DIGITAL REPOSITORY*. 1995.
- [11] Soon Kyu Kim. "School resilience of poor youth development model: the addition of protective factors, mediating, moderating effect around the model." *Doctoral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6.
- [12] Sung Ok Pak, Kui Soon Shin, Jung Ok Park. "Self-esteem and Stress in a Child of Deficiency Famil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2 No. 4, pp. 403-416. 2003.
- [13] Yoo Mee Song, Sun Ja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lations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t and resilience -centering around the parameters of self esteem, empathy and internal,external Locu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3, pp.329-353, 2011.
- [14] Hyun Sook Shin. "Adolescent resilience to family adversity: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Vol. 11 No. 2, pp. 71-84. 2003.
- [15] Mii Sook Cho. "Children present an extension of domestic violence and behavioral problems of school violence: their solutions and countermeasures." *Through Lookingglass DukYoung* 2005.

저자소개

장 춘 옥(Chun-Ok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늘봄사회서비스상담센터 대표

<관심분야> : 가족 기능, 적응유연성, 청소년